

마이크론 '실적 신기록'... 메모리 업황 우려 날렸다

3~5월 매출 415억 달러 기록... 전년 동기보다 346% 증가 6~8월 실적도 500억 달러 안팎 전망... 시장 예상 훨씬 앞서 데이터센터 AI 수요 확산... 스마트폰·PC로 옮겨갈 듯

마이크론이 기존 전망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내놓았고, 4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디램(DRAM)·낸드플래시(NAND) 가격 상승세가 실적 상승 원인이었다. 마이크론은 24일(현지 시간) 3분기 매출 4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앞서 제시한 전망치 상단보다 약 21% 높았다. 전분기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수치로, 5분기 연속 분기 매출 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매출총이익률은

84.9%로 전분기보다 10%p 상승했다. 4분기 실적 전망도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 마이크론은 2026회계연도 4분기 매출을 500억 달러 안팎으로 전망했다. 매출총이익률은 약 86%, 주당순이익(EPS)은 31달러 안팎으로 제시했다. 회사는 4분기에도 매출과 EPS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엔 제품 가격 상승세 둔화를 반영했지만 무역지정학적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실적이 공개된 뒤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1244.41달러까지 올랐다. 실적발표 전인 24일 정규장 증가 1048.51달러보다 195.90달



마이크론은 24일(현지 시간) 3분기 매출 4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러, 18.68% 높은 수준이다. 디램과 낸드 모두 출하량 증가율은 10% 미만에 그쳤지만 가격 급등이 실적을 끌

어올렸다. 디램 가격은 60%대 상승했고 낸드 가격은 80% 넘게 뛰었다. 이에 디램 매출은 31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67%, 낸

드 매출은 전분기 대비 99% 늘었다. 회사는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공급 부족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를 들었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마이크론의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은 250억 달러를 넘었다. 연간 산 기준으로는 100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데이터센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매출도 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분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이크론은 AI 시스템 성능이 메모리 하위 시스템의 성능과 용량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메모리가 AI 시대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AI 확산이 데이터센터를 넘어 스마트폰, 고성능 PC, 자동차,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번지면서 메모리 수요 기반도 넓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마이크론은 제품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최소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신규 팹 건설 기간, 숙련 인력 부족, 인허가, 전력 인프라, 공정 난도 상승 등이 공급 확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객들과의 장기 계약도 땀었다. 마이크론은 데이터센터, 소비자 기기, 자동차 시장 고객들과 16건의 전략적 고객계약(SC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계약은 해당 기간 마이크론 디램 물량의 약 20%, 낸드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계약 구조는 특정 물량 구매 의무를 포함하는 '테이크 오어 페이(take-or-pay)' 방식이다. 16건 중 14건의 계약은 남은 계약 기간 최소 가격 기준 누적 매출이 약 1000억 달러다. 마이크론은 이미 체결한 전략적 고객계약에서 현금 예치금과 관련된 금융 약정으로 220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4월14일 서울 중구 프스트타워에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기념식이 열렸다.

백만기자

모두의카드, 추가 혜택 9월까지 쭉~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 땀 환급 혜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9월까지 이어진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환급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이상 낮췄고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 대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이용자에게는 기본형 환급률을 30%p 상향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 후 출퇴근 시간 전후 시차 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하며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약 557만 명으로 지난 4월 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하게 상승했다.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우대 지원을 강화한 결과 지방권 이용자가 지난해 말 125만 명에서 올해 6월 171만 명으로 약 46만 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모두의카드

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울산·세종 등 7개 광역자치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카드를 운영 중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교통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복지 영역이다"라며 "모두의카드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카드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교통 복지망을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고 대한민국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 교통카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기자 yhleee@skyedaily.com

네이버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재무 및 ESG 성과와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성을 담은 '2025 통합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AI 시대 방향성 담다

네이버, 통합 보고서 발간 기술 신뢰성 등 3대축 공개

INTEGRATED REPORT 2025

2025 네이버 통합 보고서.

네이버

올해 통합 보고서는 AI 전환과 기술 신뢰성이 플랫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흐름을 반영해 △비즈니스 시너지 △임팩트 창출 △기술 신뢰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네이버 임팩트의 구체적 성과도 보고서에 담겼다. 소상공인·브랜드의 AI 비즈니스 도구 활용을 돕는 ADVoost 쇼핑×AI RIDE 캠페인과 창작자 성장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런치 프로그램, 지역 로컬 브랜드 발견 경험을 제공한 BE 로컬 워크 경주 등 테크비즈니스 커뮤니티 영역별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AI 기술이 특정 기업을 넘어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의 성장 기반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하는 테크 임팩트 영역에 2025년 한 해 동안 229억 원을 집행했다. 네이버는 같은 해 임팩트 펀드로 총 1420억 원을 집행했으며 2030년까지 누적 1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AI를 밀착 적용하는 '온·서비스

스 AI' 전략도 비중 있게 다뤘다. UGC·쇼핑·로컬 등 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AI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핵심 서비스의 사용성을 고도화했다. AI 브리핑, ADVoost,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등에 AI가 적용된 사례와 함께, 향후 Agent N, AI 탭, 쇼핑 AI 에이전트 등을 통해 검색에서 구매·예약·결제에 이르는 AI 경험을 확대해 이용자의 탐색·의사결정·실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용자에 대한 기술 신뢰성 제고 기초에 맞춰 지속가능성 전략도 전면 개편했으며,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중대 포획인 △개인정보보호 △정보 보안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관련 정보를 한층 충실히 담았다. ESG 성과로는 '2040 카본 네거티브' 전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AI 데이터센터용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성과도 공개했다. 아울러 기후 정보공개 보고서를 별도 발간해 글로벌·국내 기후 공시 기준에 맞춰 △기후 관련 의사결정 체계 △시나리오 분석 △기후 회복력 △지표 및 목표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용자, 사업자, 창작자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AI와 데이터,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이들이 기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네이버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